

일본, '그린 인프라 추진 전략 2030' 수립, 자연 기반 도시·국토 전환 가속화

https://www.mlit.go.jp/report/press/sogo10_hh_000369.html

https://www.mlit.go.jp/sogoseisaku/environment/sosei_environment_tk_000017.html

일본 국토교통성이 자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그린 인프라 추진 전략 2030(グリーンインフラ推進戦略 2030)'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그린 인프라'는 숲·하천·습지·녹지공간 등 자연이 가진 기능을 활용해 재해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 적응,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회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전략을 통해 그린 인프라를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도시 개발, 국토 관리 전반의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회색 인프라(콘크리트 중심 시설)'에 의존해 온 기존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국토 관리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이미 2023년 '그린 인프라 추진 전략 2023'을 통해 초기 방향성을 설정한 바 있다. 이후 정책 성과와 국제 동향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행력을 강화한 장기 전략으로 발전시킨 것이 이번 '추진 전략 2030'이다. 특히 2025년 수립된 '국토교통성 환경행동계획(国土交通省環境行動計画)'과 연계해 그린 인프라를 환경 정책을 넘어 국토 개발, 도시계획, 방재 정책의 통합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략의 핵심은 구체적인 성과 관리 체계 도입이다. 국토교통성은 사회문제 해결형 그린 인프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 19개의 핵심 성과 지표(KPI)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 열섬 완화 ▲홍수 대응력 강화 ▲생태계 보전 ▲주민 웰빙(Wellbeing)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수치로 평가하고, 정책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 실현을 위해 민·관 연계 플랫폼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민간 개발사, 시민단체,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해 실제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그린 인프라 모델을 현장에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린 인프라 활용도 출처: 국토교통성, (2026). 그린인프라추진전략 2030 参考資料, 2.